

전북농협, 침수피해 복구 만전

침수피해 복구지원으로 '농심(農心)과 하나되기' 논콩 침수피해 임직원 등 170여명의 인력 긴급 투입

전북농협 본부장은 9일 재해대책회의의를 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을 점검, 재해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14개 시군에서 4,169ha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3개 농가에서 5만6천수의 닭·오리가 폐사되었다. 특히 집중호우 전에 파종을 마친 논콩의 경우 부안·김제·군산 등 7개 시군에서 675ha의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농협은 콩 파종시기 및 계속해서 일기가 좋지 않아 기계파종을 하지 못하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재파종을 해야 하는 논콩 재배농가를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주 집중적으로 침수피해 복구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논콩 침수피해가 많은 군산 김제 지역에 전북 농협 임직원, 농촌사랑봉사단, 고항주부모임 등 170여명의 인력을 대두 보식 및 서리태 대파 등에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필요한 인력 수급, 공동방제 필요성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논공을 재배하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논콩 전환농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가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전북농협 본부장은 9일 재해대책회의를 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을 점검, 재해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지방우정청, Fun경영 리더십 전략회의 진행

전북지방우정청은 9일 무주수련원에서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과 우정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un경영 리더십을 주제로 2차 경영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우편·예금·보험사업별 핵심성과 지표 분석 및 연도말 사업 전망을 통한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부서별 협조사항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특히,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

은 Fun 경영 리더십을 소개하며 우정청 간부 및 우체국 책임직들이 Fun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할 것을 강조, 활기차고 화합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경영평가 최우수 청을 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성철 청장은 "무더위가 시작되면 만큼 철저한 자기 관리로 건강한 여름나기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고 "하반기에도 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가업로 우정청과 현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정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미래혁신리더 양성 위한 특강 실시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7일 지역본부에서 전북 관내 예비 지점장들을 대상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썸머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농협은행 전북본부 내 예비 지점장들의 '소통능력 향상,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장근 본부장 및 리더십 전문가 강관수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리더의 역할과 역량, 리더십 프로세스 및 실천사례' 등

의 강의를 들으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을 점검했고, 각자 소속된 영업점에서 성과창출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김장근)는 특강을 통해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 개인의 역량과 따뜻한 마음'이라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존경 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가는 '축적의 시간'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명품 리더'가 되어 도민과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명품 농협은행'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가온바이오, 부영2차아파트 경로당에 '마디력' 기부

가능성 건강식품 (유)가온바이오(대표 박송은)은 어르신들 건강 회복을 위해 회사대표 상품인 '마디력' 기부 릴레이에 나섰다.

(유)가온바이오는 지난 6일 부영 2차아파트 경로당(회장 황영섭, 인후3동 노인회장)에서 어르신 30여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마디력' 10상자를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통증완화 관절 및 연골에 좋은 제품으로 평가되고있는 '마디력'은 (구이런)민속한의원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가능성 건강식품 전문회사 (유)가온바이오가 제조·판매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도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381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유)가온바이오 서동일 회장은 "어



가온바이오는 지난 6일 부영2차아파트 경로당 회장 황영섭, 인후3동 노인회장)에서 어르신 30여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마디력 10상자를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르신들의 질환을 예방하는 가능성 건강식품인 마디력 복용으로 병원을 줄여서 어르신들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2차아파트 경로당 황영섭 회

장은 "나이가 들면 관절로 인한 통증이 심한데 효과가 좋은 마디력을 기증받아서 통증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김영태 기자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사의 표명

제23대 이문용회장 건강상 이유 사임제 제출

익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갑작스레 사임 의사를 밝히며 4개월여만에 중도하차 했다.

이에 따라 익산상공회의소는 3년 임기의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월 임기에 들어간 제23대 이문용(69)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6일자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익산상의 박현재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진다. 최근 하급 대표직에서도 물러나면서 사직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익산상공회의소는 제22대 최병선 회장이 올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2월 27일 임원선거를 위한 제23대 의원총회를 열고 제23대 새 회장에 (후)하급 이문용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익산상의 관계자는 "회장자리가 장기간 비워 놓을 수 없기에 상의 임원진 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누가 새 회장에 나설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고산농협, 서울 역촌초 체험행사 농업·농촌 가치 제고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친환경 쌀을 공급, 서울 은평구 역촌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초청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쌀을 공급받는 도시 지역 학생들이 친환경 농업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쌀의 소중함을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의 일정은 모내기 체험과 함께 생산단지 및 도정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내가 만든 쌀밥 체험(밥짓기 체험), 찰포 비누 만들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빵체험과 삼례문화예술촌 탐방 등 먹거리와 볼거리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지역의 농산물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은평구 학교급식 모내미(평)단도 함께 방문 '안전,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모내미(평)이 이루기도 했다.

고산농협은 올 초 서울 10개 학교, 제주도 2개 학교에서 약 3,000여명의 학생이 참여, 움직이는 친환경 논밭학교(스쿨팜) 모내기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JB카드 썸머 페스티벌' 6월 당첨자 발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6월에 JB카드 썸머 페스티벌 경품 당첨자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6월 22일부터 8월 말일까지 진행되는 본 행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월 54명 총 102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1등 김치냉장고(3명), 2등 무선청소기(9명), 3등에겐 롯데마트 모바일쿠폰(150명)이 경품으로 주어진다.

이번 경품추첨은 6월 행사기간 중 JB개인카드를 누적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 이

정규씨를 비롯한 54명의 고객들이 당첨의 행운을 안았고, 7월과 8월에도 동일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전북은행 개인신용 또는 개인체크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전북은행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JB개인카드 누적 이용액이 10만 원씩 누적될 때 마다 당첨의 기회가 1회씩 부여, 계획적인 카드 사용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